

잘 가꾼 순천만 정원, 제주도 안부럽다

순천시 입장료 수익 125억
단일 관광지 중 전국 최고
안동·경주 앞서...제주와 비스

‘정원의 도시’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 효과에 힘입어 제주도에 버금가는 입장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중인 단일 관광지로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전국 최고의 입장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돼 국가정원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 등 입장료 수입 증가로 세외수입이 전남 최고액인 6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과 드라마세트장, 낙안읍성 등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2014년 대비 179억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수입은 지난 한해에만 99억1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순천시 지역관광지에서만 모두 125억원을 거둬들였다.

정원박람회 개최전인 지난 2012년 36억원과 비교하면 274%(89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세외수입 증가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로 교부세만 63억원을 지원받게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지난해 연간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연간 입장료 수입도 자치단체 직영 단일 관광지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내주요관광지 입장료수입 (2015년)	
제주도	169억원
순천시	125억원
경북 안동시	44억원
경북 경주시	20억원

돼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관련 총 수입은 188억원에 이른다는데 순천시의 설명이다.

이는 순천시민이 보유한 차량 12만대의 자동차세(190억원)와 맞먹는 새로운 세원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관광지 수입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2015년 전국 자치단체 세외수입 통계연감에 따르면 자치단체 직영관광지 기준으로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는 제주도의 입장료 수입은 169억원이며 안동 44억원, 경주 2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순천만국가정원 단일 관광지만으로 99억1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려 자치단체 직영 단일관광지 중 전국 최고 수입을 기록했으며, 제주도

전체 관광지 입장 수입과 비교해도 불과 69억9000만원이 적은 액수다.

순천시 관계자는 “입장료 수입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순천시 재정확보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 올해에도 재정수입 최고액 경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 2016년 예산 편성 규모도 전년보다 703억원이 증가한 9119억원으로 전남 도내 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하며 1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호남정치 복원...대통합으로 힘있는 야당 만들어야”

총선 D-77 광주 민심 르포

사흘간 25.7cm의 폭설이 내린 광주. 26일 광주 남광주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쌓인 눈과 얼어붙은 빙판길을 치우는 상인들로 분주했다.

눈을 치우던 상인 박정식(45)씨는 총선 이야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당이 많아진 만큼 (후보)선택이 폭이 넓어져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며 “그동안 표만 쫓더니 (더민주)이것들이 정신을 못차렸어, 쌓인 눈 치우듯이 이번에는 일당독점을 갈아봐야 제”라고 말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상인 정승현(39)씨가 불꽃 끼어들었다. “어제 안철수하고 천정배하고 통합했다며? 잘된 것 아닌가”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동안 호남정치 복원을 외친 천정배하고, 부산 출신에 대권 후보인 안철수가 만나면 통합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보였다.

전날 안-천 통합이 이뤄지면서 광주 민심은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주부 정영숙(49)씨는 “안철수 탈당 이후 기대감이 상당했지만, 인재영입도 더디고 영 시원치 않았는데, 어찌됐든 개혁성이 있어 보이는 천정배와 통합했다니 다행이다”면서 “두 사람이 통합해서 정말 지역의 좋은 정치인들 좀 공천해주고, 힘있는 야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도 있었다. 남구 진월동 대형 할인마트에서 만난 이근선(42)씨는 “박근혜와 여당은 독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당이 분열돼서 무얼하겠냐”면서 “안-천만 통합해서는 안되고 어떻게든 야권이 모두 통합을 해서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기는 힘있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박영우(45)씨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한다고 잔뜩 기대했드만, 더민주

탈당 의원들이 그쪽(안 신당)으로 간 거 본 게 새정치 하긴 글렀다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반감을 표시했다.

더민주 측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잇따른 인재영입과 함께 선대위·비대위를 꾸리면서 호남 민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회복세는 더디게 보였다.

주부 김성자(54)씨는 “지난 대선때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문재인한테 표를 몰아줬나? 대선에서 지고 광주는 말 그대로 실망감과 패배감에 빠져있었는데, 자들이 광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라며 “선거때만 되면 표만 주라고 하고, 차라리 안철수가 죽을 쥔대 기대라도 한번 해볼라요”라고 말했다.

남구 진월동 대형할인마트에서 만난 이근선(49)씨는 “더민주가 인재도 영입하고, 잘할줄 알았더니 선대위원장부터 틀렸다”라며 “문 대표가 몰러나고 김종인이 들어왔는데, 전두환 국보위 참여하고 여

야를 오락가락하는 철새 정치인이 어떻게 정통 야당을 대표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화와 개혁, 새인물론에 대한 요구도 넘쳐났다. 이번 총선에서 ‘바람’이 일지 ‘인물론’으로 감지 광주 표심은 여전히 가능하기 어려웠다. 영암읍 택시운전기사 박승호(59)씨는 “고로코롬 민주당 지지했는데 뭘 해준 게 있단디”라며 “확 바뀌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알립니다

고수들의 명강연...지식·교양·지혜의 향연

호남의 리더를 모십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졸업식 및 3기 입학식

리더스 아카데미 1·2·3기 주요 강사



최진석 임홍길 황교익 서민 조혜련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4기 원생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에 오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4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강생들에게 구축해 드려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범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12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1월31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

누리과정 급한 불 켜다...광주 3개월·전남 5개월 예산 편성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3개월분 편성키로 했다. 광주시도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한 편성 방침을 바꿨다, 삭

감된 유치원 예산과 자체 예산을 보태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보육 대란의 불은 꺼진 셈이다.

▶2면으로 계속·관련기사 6면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d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ℓ (도시연비: 13.7km/ℓ, 고속도로연비: 18.4km/ℓ),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